

아직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

18.07.02(월)~18.07.06(금)

강승건. neo.cygun@hi-ib.com
최영수. yschoi@hi-ib.com

1. 전주 주가 추이

	현재가	Mkt. Cap.	PBR (2018F)	PER (2018F)	ROE (2018F)	Performance					Weekly Net Buy			공매도 거래대금	
						1W	1M	3M	6M	YTD	Institution	Foreigners	Pension	1W	1M
KOSPI	2,273	1,408,676	1.0	9.3	11.4	-2.3	-7.4	-6.5	-9.0	-7.9	-229	-158	-263	1,765	8,207
KOSDAQ	809	161,897	2.5	18.1	14.5	-1.1	-7.8	-6.8	-2.3	1.3	103	76	33	459	2,205
보험	18,017	20,348	0.6	10.5	6.3	1.2	-1.8	-7.0	-12.5	-14.8	59	-30	29	31	130
증권	1,872	19,500	0.8	8.8	9.5	-3.1	-12.1	-7.2	-8.2	-5.7	-13	-12	-11	23	121
삼성생명	97,900	19,580	0.6	8.3	7.1	-0.5	-5.4	-15.2	-19.4	-21.4	-3	-2	6	12	32
한화생명	5,220	4,534	0.5	7.9	6.0	-1.5	-7.8	-12.7	-25.4	-24.5	-3	2	-0	2	8
ING생명	40,400	3,313	0.9	9.7	9.3	-3.5	-0.9	-7.6	-21.1	-24.3	-3	2	-0	1	12
동양생명	7,400	1,194	0.5	8.3	5.8	0.1	3.9	-7.3	0.4	-2.6	0	0	0	0	4
삼성화재	274,500	13,004	1.1	11.9	9.0	4.0	4.8	3.6	5.4	2.8	29	-7	14	6	28
DB손해보험	61,900	4,383	0.8	6.3	13.1	4.9	1.5	2.3	-8.2	-13.1	19	-14	6	5	18
현대해상	36,800	3,290	0.9	5.9	15.6	9.2	2.5	-0.3	-16.6	-21.7	14	-7	5	3	16
메리츠화재	19,550	2,157	1.2	7.1	16.8	1.8	-3.0	-6.0	-15.9	-16.8	1	-1	1	2	6
한화손해보험	6,600	770	0.6	5.2	11.9	1.1	-3.4	-14.6	-18.3	-18.9	1	-2	0	1	2
삼성증권	33,800	3,018	0.6	8.2	8.1	-2.7	-9.0	-11.9	-9.5	-7.7	-3	-0	0	3	16
미래에셋대우	8,280	5,451	0.7	8.8	8.4	-2.8	-11.8	-7.6	-11.2	-9.9	-8	0	-2	10	40
NH투자증권	14,250	4,010	0.8	9.4	9.1	-4.7	-12.0	4.0	-1.0	2.5	-4	-1	-5	5	29
한국금융지주	82,100	4,575	1.1	7.9	14.8	-2.4	-13.5	3.0	13.2	19.0	-13	13	-2	9	39
키움증권	101,500	2,243	1.2	7.9	17.9	-6.5	-17.1	-6.5	12.3	15.9	9	-13	-1	1	16

자료: 개별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지수 추정치는 frguide 컨센서스 기준

2. 전주 동향

보험	보험업종 강세 시현: 전주 보험업종은 손해보험사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하였음. 손해보험업종 반등의 배경에는 1) 주요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2) 보험사의 2분기 실적 전망 자료들이 나오며 2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생명보험사 역시 시장대비 강세를 시현하였지만 지표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소폭 강세만 시현하였음
	▶ 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추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확대(천재지변 보상에 지진을 포함) 및 보험금 누수 예방 내용(경미사고시 부품교환 불가)이 담긴 약관 개정을 추진 중임
	▶ DB손보 S&P 신용등급 'A' 격상: DB손해보험의 S&P 신용등급이 'A(Stable/안정적)'로 한 등급 상향되었음
	▶ 손보업계, 금감원 사직비 규제에 '인수기준 완화 및 대응': 손보사들은 GA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간편심사, 어린이보험 등 인수기준 완화 경쟁을 이어가고 있음. DB손보의 경우 간편심사보험의 최소 가입나이를 40세에서 20세로 대폭 늘렸음. DB손보는 이전에도 어린이보험의 최대 가입나이를 20세에서 30세로 확대한 바 있음

증권	증권업종 약세 시현: 전주 증권업종은 약세를 시현하였음. 2분기 거래대금 및 ELS 조기상환이 당초 기대치에 미달한다는 점과 주요국 지수의 하락 및 회전율 하락을 감안할 때 3분기 실적 역시 2분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판단됨
	▶ 재정특위가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 기재부는 난색: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권고. 권고안 전달 후 기재부 측에서는 종부세와 동시에 인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음.
	▶ 삼성증권 징계, 증선위 통과, 25일 결정: 금감원은 배당사고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위탁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전현직 대표 징계 등의 제재안을 내놓은 바 있음. 금융위는 지난 4일 증선위를 열어 금감원의 징계안 원안을 통과시켰으며 25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

3. 주간지표 업데이트

	전주	YTD	Monthly						MoM	Quarterly				QoQ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누계		3Q17	4Q17	1Q18	2Q18		
일평균거래대금	조원	17년대비,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9.1	0.6	13.0	12.4	14.3	15.0	12.4	9.1	-26.9	8.2	11.8	13.8	13.9	9.1	-34.7
KOSPI	5.7	6.2	6.9	6.9	7.8	9.1	7.5	5.7	-24.7	5.2	6.0	7.0	8.1	5.7	-30.2
KOSDAQ	3.4	-7.5	6.2	5.5	6.5	5.9	4.9	3.4	-30.2	3.0	5.8	6.8	5.8	3.4	-41.1
신용잔고	조원	YTD, %							조원 %					조원 %	
KOSPI+KOSDAQ	11.2	14.0	11.2	11.3	12.2	12.5	11.8	11.2	-4.8	8.3	9.8	11.3	11.8	11.2	-4.8
KOSPI	5.7	28.1	5.3	5.4	6.0	6.2	5.7	5.7	-4.2	4.0	4.5	5.4	6.0	5.7	-4.2
KOSDAQ	5.5	2.3	5.9	5.9	6.2	6.3	5.8	5.5	-5.5	4.3	5.4	5.9	5.8	5.5	-5.5
국고채금리[기말]	%	YTD, bp							%	bp				%	bp
1년	1.82	0.4	1.84	1.89	1.85	1.85	1.85	1.82	-2.2	1.53	1.85	1.89	1.85	1.82	-2.2
3년	2.10	-1.8	2.27	2.22	2.20	2.12	2.10	2.10	-2.5	1.89	2.13	2.22	2.12	2.10	-2.5
5년	2.35	1.0	2.52	2.43	2.49	2.48	2.35	2.35	-0.6	2.08	2.35	2.43	2.35	2.35	-0.6
10년	2.56	6.3	2.74	2.62	2.72	2.70	2.56	2.56	0.0	2.37	2.47	2.62	2.56	2.56	0.0
약정 MS	%	17년대비, %p							%	%p				%	%p
삼성증권	6.1	0.1	5.8	6.2	6.4	6.1	6.0	6.1	0.1	6.2	6.0	6.2	6.2	6.1	-0.1
미래에셋대우	12.8	0.2	13.2	13.1	13.2	12.8	12.3	12.8	0.5	12.7	13.2	13.3	12.8	12.8	-0.0
NH투자증권	6.5	0.5	6.1	6.3	6.4	6.4	6.5	6.5	0.1	5.7	6.4	6.3	6.4	6.5	0.1
한국금융지주	5.1	-0.7	5.5	5.5	5.5	5.2	5.1	5.1	0.0	6.1	5.8	5.7	5.3	5.1	-0.1
키움증권	16.9	0.3	17.5	17.1	18.5	18.2	17.9	16.9	-1.1	15.3	17.4	17.5	18.2	16.9	-1.4

자료: KOFIA, Check, KRX

4. 금주 전망

보험	- 전주 금요일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350억달러 품목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가 시작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지표 개선을 바탕으로 상승하였음
	-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부터 시작되었고 손해보험사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기시성, 특히 1분기 발생하였던 불확실성의 축소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손해보험업종 중심으로 반등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주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 전주 상승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대비 약세를 시현할 가능성도 존재함
	-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금주에도 보험업종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며 손해보험사 신계약 성장(4년만에 나타나고 있는)이 일정부분 연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손해보험 중심으로 금주에도 관심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경쟁의 방식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용 축면의 부담 우려를 축소시킬 수 있는 요소임. 따라서 우리는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손해보험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하며 4%대의 배당수익률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라고 생각함
	- 전주 일평균거래대금은 9.1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저지난주 9.9조원에서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음. 약정점유율 흡수면에서는 키움증권이 전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 개인들의 매매 참여도가 감소하면서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의 약정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 기준으로 KOSPI 및 홍콩H지수의 조기상환 조달 미달이 진행되고 있으며(6개월 전 발생시점 대비 10% 이상 하락) 3분기 ELS 조기 상환은 2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임
	- 전주 금요일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금주에도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감안할 때 시장변수(거래대금, ELS 조기상환)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전주 주식시장에 해당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변동성의 축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며 증권업종의 낮아진 Valuation을 감안할 때 전주와 같은 주가 하락은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는 시장 변수가 아닌 신 수익률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함
증권	- 전주 일평균거래대금은 9.1조원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저지난주 9.9조원에서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음. 약정점유율 흡수면에서는 키움증권이 전월대비 0.9%p 하락하였음
	- 개인들의 매매 참여도가 감소하면서 회전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개인들의 기여도가 높은 키움증권의 약정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전주 기준으로 KOSPI 및 홍콩H지수의 조기상환 조달 미달이 진행되고 있으며(6개월 전 발생시점 대비 10% 이상 하락) 3분기 ELS 조기 상환은 2분기 대비 감소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임
	- 전주 금요일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금주에도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이를 감안할 때 시장변수(거래대금, ELS 조기상환)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전주 주식시장에 해당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변동성의 축소 정도는 기대할 수 있으며 증권업종의 낮아진 Valuation을 감안할 때 전주와 같은 주가 하락은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우리는 시장 변수가 아닌 신 수익률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함

5. 금주 일정

일자	국가	내용	전기치	예상치
7월 10일	미국	5월 JOLT 빈 일자리 수	6.698M	
7월 11일	미국	6월 생산자물가지수 (MoM)	0.5%	0.1%
7월 12일	미국	6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0.2%	0.2%

6. 전주 뉴스/자료 Review

뉴스	<p>07/02 (월) ►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삼성 자본비율 100%P 떨어져 (동아)</p> <p>2일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금융위가 7개그룹 대상으로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반영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당장 자본확충 시급한 곳은 없었으나 삼성과 미래에셋이 영향 끼침. 특히 내년 7월부</p> <p>▶ [단독] 車보험, '문케어' 확대 '유탄'…매년 입원료 740억 더 낼 판 (머니투데이)</p> <p>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됨. 이로 인해 건강보험 지급기준을 준용하는 자동차보험에서 그동안 2·3인 입원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p> <p>▶ '해외투자 하시죠' 증권사 경쟁 격화…갈 곳 없는 유동성 원인 (인베스트조선)</p> <p>국내 유동성 사상 최대…투자할 곳은 쌔가 말라. 해외 주식·주식 전고 1년새 2배 이상 폭증. "해외 랜드마크될 소싱 능력이 경쟁력 척도될 것"</p> <p>▶ 미래에셋대우, 호주 석탄터미널에 2700억 투자 (한국경제)</p> <p>미래에셋대우, 최근 어버포인트 석탄터미널을 담보로 하는 선순위 대출 채권 3억3000만호주달러(약 2700억원) 어치를 매입. 투자기간 7년…이자율 연 5%대</p>
	<p>07/03 (화) ► [단독] 태아 사망 위자료·군복무 소득 인정 추진…차보험 보상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p> <p>금감원&순회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약관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보상범위 확대와 보험금 누수 예방임. 주요 내용은 1) 입산부, 고령자, 군인 대상 보상 확대, 2) 천재지변 보상에 지진 포함(내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지진피해 기본 보상. 원하지 않을 경우 특약 선택 가입), 3) 경미사고 시 부품교환 없이 복원수리만 허용</p> <p>▶ 금융업 전입장벽 낮춘다…보험·부동산신탁 신규인가 전망 (연합뉴스)</p> <p>민간 인사들로 '경쟁도평가' 벌角逐, 업권별 2~3년마다 평가, 4분기에 은행·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 또한 부동산 신탁업과 소액 단기 보험사의 신규 인가가 허용될 전망</p> <p>▶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범운영 등 관련 법 제정 영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진행에 대한 관심 부각</p> <p>▶ [ECM 리그테이블] 힘 빠진 증시, 김 빠진 자본시장…견고해진 대형사 과점 (인베스트조선)</p> <p>[2018년 상반기 집계] [전체/유상증자 주관·인수 순위] NH證, 현대重 증자 단독주관으로 전체 주관 1위. 초대형 IB 5곳 5위까지 석권…점유율 80% 육박</p>
	<p>07/04 (수) ► 태풍 뿌라빠룬 복상…'손해율 짧간불' 손보업계 비상팀 가동 (조선비즈)</p> <p>손보사, 비상대책반 기동해 태풍 및 침수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 자동차 5월 기마감 손해율: 삼성화재 81.0% (5.2%p, yoy), 현대해상 79.0% (1.7%p, yoy), 메리츠화재 75.9% (1.7%p, yoy)</p> <p>▶ 안아서 1억3천 버는 금융소득자 잡으려니 ELS·해외펀드 '비상' (연합뉴스)</p> <p>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ELS·해외펀드(과세) 투자자 비상</p> <p>▶ 올해 IPO '작황' 7~8월에 결판난다…하반기 대거 상장 '시동' (머니투데이)</p> <p>초대어 상장 부진했던 올 상반기 공모규모 지난해보다 83.6% ↓ …현재 심사 대기중인 기업 28곳</p> <p>▶ 교보생명, 치솟는 채권금리에 해외 신증자분증권 발행 보류 (머니투데이)</p> <p>이달중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증자분증권 발행 추진하다 중단, 금리 안정 후 재추진 예정</p> <p>▶ "IFRS17 준비 기간 1년 더 달라"…'총대 매고' 요청한 한국 보험업계 (한국경제)</p> <p>"2020년 회계 비교공시 제외와" 삼성생명이 대표로 IASB에 서한. 특히 인력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들 2021년 시행 제대로 준비 못해. "글로벌 보험사도 동참 가능성"</p> <p>▶ DB손보 S&P신용등급 'A' 격상 (헤럴드)</p> <p>DB손해보험의 S&P 신용등급 'A(Stable·안정적)'로 한 등급 올라</p> <p>▶ ING생명, 브랜드 교체에 수백억…배당 재원도 감소할 듯 (인베스트조선)</p> <p>리브랜딩 예산 250억…영업이익 8% 수준. 올해 성장치 상쇄하는 규모…배당 영향 주목</p>
	<p>07/05 (목) ► '유령주 유통' 삼성證 징계, 증선위 통과…25일 결정 (머니투데이)</p> <p>금융위 4일 증선위 열어 징계안 원안 통과. 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p> <p>▶ [MT리포트] '불로소득 증세' 권리고, 금융과세는 '일단정지'? (머니투데이)</p> <p>기재부, 재정특위가 내놓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안에 난색… 증부세와 동시 인상 어렵다는 입장. 재정특위는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과제로 재산세·경유세·주식양도차익 등 제시. 자본이득과세 관련해서는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에서 개인 투자자로 넓히거나 세율 인상 등이 개편 방안으로 나왔음</p> <p>▶ '초대형 IB' 과정 심화…'자본이 곧 순위'인 시대 왔다 (인베스트조선)</p> <p>상반기 자본시장, 상위권 증권사 실적 쓸림세. 파이 줄어든 ECM, 시장 커진 DCM 가리지 않아. "트랙레코드 편중되며 실적 쓸림세 가속화 전망"</p> <p>▶ [단독] 미래에셋대우, 中 드론기업 프리IPO에 1200억원 투자 (아시아투데이)</p> <p>미래에셋대우가 중국 드론 전문기업인 DJI의 프리IPO에 1200억원 투자 계획.</p> <p>▶ NH증권 발행어음, 안정적 개인자금 수신 '방검' (더밸)</p> <p>2.5% 적립형, 개인 타깃…만기 1년형, 한국증권 금리 동일 '경쟁 지향'</p> <p>▶ 최종구 "K-ICS 도입, 업계 의견 최대한 받겠다" (EBN)</p> <p>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도입에 앞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음. 다만 도입을 유예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언급</p>
	<p>07/06 (금) ► [단독] 인터부은행 '온산분리 완화' 선회한 민주당…입법은 '산 넘어 산' (경향비즈)</p> <p>지난달 여당 수뇌부 입장 정리…'규제혁신 통한 고용 창출' 명목으로 온산분리 완화 입장으로 선회. 현재 5개 법안 계류 중…정무위 소속 위원들·참여연대 등 반발 커</p> <p>▶ [단독] 농협, 제한사업 족쇄 풀다…車·변액보험 진출 타진 (아주경제)</p> <p>"방카를 적용 제한 성문법 아니라 시장진출 방법 찾을 것", 경쟁사들 "단위조합 활용 보험산업 지각변동" 우려도</p> <p>▶ 한국금융지주 '카뱅 DNA' 계열사에 심는다 (서울경제)</p> <p>카카오뱅크서 아이디어 얻어 한투증권, MTS·앱 개편 나서. 첫 단계로 MTS를 개편하고 나면 카카오뱅크와의 연계 작업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 한투저축은행, 카카오뱅크와의 대출 연계 추진</p> <p>▶ 발행어음형 CMA 8000억원 돌파 (파이낸셜)</p> <p>연 1.55% 매력적. 금리 2월말 잔고 1200억원, 이달 8227억원으로 6배 ↑</p> <p>▶ 손보업계, 금감원 시책비 규제에 '인수기준 완화'로 맞대응 (대한금융신문)</p> <p>간편심사·어린이보험 등 가입 연령 대폭 확대, GA 강약력 강화 목적…보험사 출혈경쟁 예고</p>

7. Global Peers

		현재가 (Local)	Mkt. Cap. (USD bn)	PBR (FY18F)	PER (FY18F)	ROE (FY18F)	ROA (FY18F)	Performance (%)				
								1W	1M	3M	6M	YTD
한국	KOSPI	2,273		1.0	9.3	11.4	3.1	-2.3	-7.4	-6.5	-9.0	-7.9
	보험	18,017		0.6	10.5	6.3	0.6	1.2	-1.8	-7.0	-12.5	-14.8
	삼성생명	97,900	17.6	0.6	8.3	7.1	0.7	-0.5	-5.4	-15.2	-19.4	-21.4
	한화생명	5,220	4.1	0.5	7.9	6.0	0.4	-1.5	-7.8	-12.7	-25.4	-24.5
	ING생명	40,400	3.0	0.9	9.7	9.3	1.1	-3.5	-0.9	-7.6	-21.1	-24.3
	동양생명	7,400	1.1	0.5	8.3	5.8	0.4	0.1	3.9	-7.3	0.4	-2.6
	삼성화재	274,500	11.7	1.1	11.9	9.0	1.4	4.0	4.8	3.6	5.4	2.8
	DB손해보험	61,900	3.9	0.8	6.3	13.1	1.2	4.9	1.5	2.3	-8.2	-13.1
	현대해상	36,800	2.9	0.9	5.9	15.6	1.2	9.2	2.5	-0.3	-16.6	-21.7
	메리츠화재	19,550	1.9	1.2	7.1	16.8	1.6	1.8	-3.0	-6.0	-15.9	-16.8
	한화손해보험	6,600	0.7	0.6	5.2	11.9	0.9	1.1	-3.4	-14.6	-18.3	-18.9
	증권	1,872		0.8	8.8	9.5	1.0	-3.1	-12.1	-7.2	-8.2	-5.7
	삼성증권	33,800	2.7	0.6	8.2	8.1	0.9	-2.7	-9.0	-11.9	-9.5	-7.7
	미래에셋대우	8,280	4.9	0.7	8.8	8.4	0.7	-2.8	-11.8	-7.6	-11.2	-9.9
	NH투자증권	14,250	3.6	0.8	9.4	9.1	1.0	-4.7	-12.0	4.0	-1.0	2.5
	한국금융지주	82,100	4.1	1.1	7.9	14.8	1.2	-2.4	-13.5	3.0	13.2	19.0
	키움증권	101,500	2.0	1.2	7.9	17.9	2.6	-6.5	-17.1	-6.5	12.3	15.9
일본	Nikkei225	21,788		1.6	15.8	10.2	2.0	-2.3	-4.0	0.5	-8.6	-4.3
	보험	990		0.8	10.2	7.0	0.7	-1.1	-6.1	1.2	-9.7	-6.6
	Dai-ichi Life Holdings	4,194	26.9	2.3	48.9	4.7	2.6	-1.0	8.4	12.4	34.6	42.8
	Japan Post Insurance	2,285	12.4	0.7	15.0	4.6	0.1	0.3	-8.6	-7.8	-15.1	-13.7
	Tokio Marine Holdings	5,245	35.5	1.0	14.4	7.3	1.1	1.0	-4.1	8.9	-1.4	2.0
	증권	385		0.8	9.1	8.3	0.6	-2.7	-6.1	-7.8	-18.0	-11.5
	Nomura Holdings	529	17.4	0.6	7.3	9.0	0.6	-1.7	-9.1	-14.2	-25.5	-20.5
	Daiwa Securities	633	9.7	0.8	9.8	8.6	0.6	-1.6	-2.7	-5.0	-15.4	-10.4
	SBI Holdings	2,665	5.4	1.3	11.6	11.9	1.2	-6.6	-9.6	3.3	-1.2	13.1
중국/홍콩	Hang Seng	28,316		1.2	11.3	12.8	1.1	-0.6	-8.5	-6.3	-8.7	-5.4
	상해A주 지수	2,877		1.3	11.0	12.1	1.1	-3.5	-10.4	-12.5	-19.5	-16.9
	보험	141		1.2	10.3	11.3	1.9	-4.9	-14.1	-11.5	-24.5	-21.9
	China Life	19	88.9	1.3	10.7	12.7	1.5	-4.1	-16.9	-10.7	-22.1	-22.0
	Ping An Insurance	70	159.0	2.0	10.7	19.3	1.5	-2.2	-12.4	-12.1	-15.0	-14.1
	AIA	68	104.1	2.3	18.3	13.0	2.6	-0.7	-8.3	0.1	0.3	1.5
	증권	92		1.1	14.7	7.9	51.8	-3.2	-12.7	-22.5	-28.9	-26.7
	CITIC Securities	15	28.3	1.0	12.0	8.5	2.0	-3.1	-23.8	-18.6	-11.2	-6.8
	Haitong Securities	7	14.4	0.6	7.7	7.7	1.8	-5.0	-26.2	-28.7	-38.2	-35.0
	Huatai Securities	12	14.2	0.7	8.7	8.7	2.0	-7.1	-25.6	-23.4	-30.0	-26.1
미국	S&P500	2,760		3.2	17.3	18.6	3.6	1.6	-0.7	5.6	0.3	3.2
	보험	374		1.3	11.5	11.2	#N/A N/A	1.4	-3.6	-2.7	-7.8	-6.9
	AIG	54	48.8	0.7	11.2	6.8	0.9	2.1	0.9	1.4	-10.4	-8.7
	Metlife	44	44.5	0.9	8.6	10.3	0.7	-0.5	-7.1	-3.4	-15.6	-13.5
	Prudential Financial	95	39.8	0.8	7.7	12.3	0.6	1.3	-4.9	-7.3	-19.4	-17.5
	증권	199		2.1	14.7	12.7	1.3	-1.1	-6.6	-1.5	-4.8	-1.7
	JP Morgan	104	354.3	1.5	11.6	13.4	1.2	-0.8	-6.1	-4.6	-4.0	-2.7
	Goldman Sachs	222	87.0	1.1	9.7	12.1	1.0	-0.7	-5.0	-11.3	-13.2	-12.9
	Charles Schwab	51	68.3	3.7	20.9	19.2	1.3	-2.0	-11.7	1.1	-2.6	-1.4
유럽	MSCI Europe	129		1.8	14.4	10.0	1.0	0.7	-0.7	1.9	-4.5	-1.9
	보험	73		1.1	10.5	12.6	0.5	0.5	-1.3	-4.0	-7.5	-5.0
	Allianz	180	90.7	1.2	10.4	11.4	0.9	1.5	0.1	-3.8	-9.5	-6.2
	AXA	21	60.1	0.7	8.4	8.9	0.6	0.5	-3.1	-4.0	-17.2	-14.6
	Prudential plc	1,762	60.6	2.5	11.7	23.8	0.5	1.6	-4.4	-1.0	-8.3	-7.5
	Munich Re	183	32.2	1.0	10.8	9.0	1.1	1.3	2.5	-4.5	-0.7	1.5
	증권	72		1.1	14.5	6.6	0.5	0.8	-0.9	-3.2	-10.7	-9.3
	UBS	15	59.2	1.1	11.1	9.2	0.5	1.1	-1.2	-6.4	-14.9	-13.0
	Credit Suisse	15	38.5	0.9	12.6	7.0	0.4	-0.3	-2.9	-3.4	-14.2	-13.0
	Deutsche Bank	10	23.7	0.3	22.7	1.2	0.3	5.8	1.5	-14.0	-37.0	-38.5

자료: 한국 보험사, 증권사 추정치는 하이투자증권 기준, 한국 지수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이외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 주요국 금리 동향

		금리 수준 (%)					변동폭 (bp)						
		현재	1W	1M	3M	6M	연초	1W	1M	3M	6M	YTD	
한국	국고채	1 Year	1,824	1,846	1,843	1,843	1,785	1,853	-2.2	-1.9	-1.9	3.9	-2.9
		3 Year	2,097	2,122	2,202	2,162	2,093	2,134	-2.5	-10.5	-6.5	0.4	-3.7
		5 Year	2,345	2,351	2,500	2,387	2,337	2,347	-0.6	-15.5	-4.2	0.8	-0.2
		10 Year	2,555	2,555	2,717	2,602	2,515	2,467	0.0	-16.2	-4.7	4.0	8.8
일본	국고채	1 Year	-0.127	-0.121	-0.130	-0.135	-0.129	-0.145	-0.6	0.3	0.8	0.2	1.8
		10 Year	0.033	0.036	0.055	0.046	0.063	0.048	-0.3	-2.2	-1.3	-3.0	-1.5
중국	국고채	1 Year	3,038	3,160	3,195	3,276	3,627	3,834	-12.2	-15.7	-23.8	-58.9	-79.6
		10 Year	3,532	3,479	3,680	3,738	3,928	3,902	5.3	-14.8	-20.6	-39.6	-37.0
미국	국고채	1 Year	2,303	2,312	2,296	2,045	1,793	1,732	-0.9	0.8	25.8	51.1	57.2
		10 Year	2,822	2,860	2,972	2,774	2,476	2,405	-3.8	-15.0	4.8	34.5	41.6
유럽	국고채	1 Year	-0.543	-0.549	-0.579	-0.572	-0.581	-0.611	0.6	3.6	2.9	3.8	6.8
		10 Year	0.292	0.302	0.465	0.497	0.439	0.427	-1.0	-17.3	-20.5	-14.7	-13.5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기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강승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 의견은 항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 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